

박윤선

1964 공관복음(성경주석). 서울: 총회교육부.

1967 에스겔서 다니엘서(성경주석). 서울: 총회교육부.

이상근

1966 마태복음(성경주해). 서울: 총회교육부.

한정건

1989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재 해석", 고신대학 논문집 제17집. 부
산: 고신대학 출판부, pp. 93-115.

堅信禮의 역사적 발전과 그 모티브에 관한 연구

(Historische Entwicklung der Konfirmation und ihre Motivkreise)

姜 勇 元*

목 차

1. 서 론
 2. 고대교회
 3. 종교개혁이전의 로마교
 4. 개혁의 선구자들
 5. 종교개혁시대
 6.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7. 현대적 의미와 그 모티브 분석
 8. 결 론
- 참고도서목록

1. 서 론

이 글을 쓰게되는 배경은 한국교회에서 실시되고있는 입교예식이 매우 무의미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된다. 주로 성인세례 및 유아세례와 함께 실시되는 입교의식은 마치 부차적인 예식처럼 치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전날의 간단한 당회 앞에서의 문답, 공중앞에서의 서약, 그리고 입교인이 되었다는 선언등으로 끝난다. 필자는 이 입교의식이 좀 더 의미있게 실행될 수 없겠는가를 생각해보던 중 스위스나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견신례와 견신례 교육과 접하면서 우리의 입교예식이 변해야 되겠다는 시사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최근에 독일 계통에서의 견신례와 견신례교육에 대한 소개 내지는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¹⁾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그곳의 사정을 미화

*부교수(실천신학)

1) 대표적인 연구로 정 일용, 견신례와 견신례 교육의 의미, in: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풍만, 1987, 218-238.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도 있다. 필자는 전신례 의식의 역사적인 고찰과 아울러 현실에 대두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새로운 전신례에 대한 이해를 함께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입교 이해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입교의식의 갱신에 대해서 논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그 첫번째 작업으로 전신례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적 흐름과 중심 모티브를 검토하는 일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2. 고대교회

견진(Firmung)은 원래 세례에 속한 의식이었다. 고대 서방교회의 세례는 단지 물뿌림이나 침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안수나 기름바르는 의식이 confirmatio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라틴어의 confirmatio는 강하게한다 혹은 견고하게 한다는 뜻을 갖는 단어이다. 여기서 안수는 성령의 전달을 의미하였고, 십자가 표시와 함께 이마에 기름바르는 것은 주님의 지배아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고대교회의 세례의식을 히폴리트(Hippolyt, ca. 220)의 교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례는 주로 부활절 밤에 실시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²⁾

a) 세례전 교육(Katechumenat) : 세례 후보자는 약 3년에 걸친 학습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교회와의 계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의 직업을 바꾸어야 했다.

b) 준비(Vorbereitung) : 세례가 있기 전의 금요일은 금식한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시간에는 기도와 일과서(Lektionen)를 읽으면서 준비한다. 주일날 새벽에 주교는 세례당에서 세례수를 봉헌한다.

c) 엑소시즘(Exorzismus) : 어린이, 남자, 여자의 순서로 행한다. 주교가 기름을 봉헌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사탄과의 단교를 선언한다 (abrenuntiatio). 어린이의 경우는 증인이 대신한다. 다음에 장로는 세례받는 자들에게 사탄 축출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다.

d) 세례(Taufe) : 부제(Diakon)는 그들을 물로 데려간다. 로마교의 신앙고백(Symbolum Romanum)에 따라 세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credo)는 말로 신앙을 고백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세번 침례(untergetauft werden)를 받는다. 몸을 말리고 옷을 갈아 입기 전에 장로는 그들에게 감사의 기름을 바른다. 그 후에 그들은 세례당을 떠난다.

e) 확증(confirmatio) : 교회에서 주교는 세례받은 자들에게 안수하고, 삼위일체 형식으로 은혜부어주심을 기도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평화의 입마춤을

2) Hippolyt, Kirchenordnung, 40-46.

한다.

f) 성찬(Eucharistie) : 세례받은 자들은 최초로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다.

3. 종교개혁이전의 로마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의 통일성 속에서 실시되던 세례의식은 그 이후에 안수와 기름바르는 의식을 통한 confirmatio가 세례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이 분리는 유아세례의 보편화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으며,³⁾ 주교직의 강화도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분리는 3세기경에 시작 되었으며, 5세기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이 분리가 시간적으로 짧은 간격을 두고 시행되었으나 13세기에 들어서면서 7세이후의 청소년기로 미루어졌다.⁴⁾ 그리고 세례는 부제(Diakon)나 장로에 의해서 행해지나, confirmatio는 주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세례에 대한 확증 내지는 인정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이미 5세기경에 confirmatio가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는데 이것은 세례이외에 성례로서의 견진(Firmung)의 독립(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Pseudisior(847-852경)는 견진이 세례보다 우위인 것을 강하게 말하였다. 즉 세례는 삶의 투쟁에서의 승리와 신앙고백의 보존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견진은 영적인 삶의 완성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다. 세례는 생명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성례인 견진(Firmung)을 통한 강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견진을 통하여 믿음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⁵⁾ 그 후 견진은 1439년 후로렌스 공의회에서 두번째의 성례로 결정되었다. (“secundum sacramentum est confirmatio”)

3) 신약성경에서의 유아세례에 관한 언급으로 행 16, 30-34에 나타나는 가족세례(oikosformel)의 형태가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유아세례가 보편화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J. Jeremias, Die Kindertaufe in den ersten vier Jahrhunderten, Göttingen, 1958; Kurt Aland, Sauglingstaufe im Neuen Testament und in der Alten Kirche, München, 1961 등을 참조하라) 그 이후의 유아세례의 점차적인 보편화는 많은 교부들에 의해 증거 되고 있다. 200년경 Tertullian은 어린이도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세례를 받게된다고 강조하였다. 앞에서 말한 히폴리트(220)의 세례의식은 이미 그 당시에 어린이가 세례에 참여되고 있음을 보인다. 250년경 Cyprian은 유아의 세례를 원죄사상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5-6세기에 이미 유아세례는 보편화 되었으며, 418년의 칼타고 회의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참고 Paul K. Jewett, Infant Baptism and the Covenant of Grace, Grand Rapids: Erdmans, 1978)

4) 참고, 정 일용, 전계서, 221-225.

5) Thomas von Aquin, Summa Theologiae III, 72.

4. 개혁의 선구자들

이와같은 견진의 성례전적 견해에 대해 여러가지 반대가 제시되었는데 최초로 이를 표명한 사람들은 순결파(Katharer)와 발드파(Waldensern)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순결파는 세례로서의 견진을 confirmatio를 회상하게하는 행위인 안수 (consolamentum)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발드파는 일정한 학습 후에 유사한 성례적 행위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발드파는 소위 “교리학습적인 견신례”의 창시자가 되었다 (kathetische Konfirmation). 보헤미안형제파(Bömische Brüder)는 15세기에 세례는 그 자신의 고백으로 긍정될 때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리문답교육 후에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후 안수로 그의 믿음이 확증되도록 하였다. 이 때를 전후로하여 이러한 형태의 견신례는 성찬에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보헤미안형제파의 영향을 받은 Erasmus(1469-1536)는 세례와 세례 후에 이루어지는 신앙고백을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이 신앙고백은 신앙의 지식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생각을 따르면 일정한 기간 목사로부터 수업을 듣고 시험을 행한 후 신앙고백을 하게하고 견진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즉 지적인 意識의 행위(Bewusstseinsakt) 후에 신앙고백의 의지의 행위(Willensakt)가 따르고 이 후에 성례와 감정행위(Gefühlsakt)로서의 견진을 따르게 하였다. 따라서 처음에 순수하게 성례전적으로 이해된 견진은 여기서 교육적이며 심리적인 것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교회가 그 종교적 교육의 수준을 높임으로 새로워지고 또한 이단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인본주의자 Erasmus의 희망이 있었다. 그는 견진에서 안수를 유지하였다. 보헤미안형제파나 Erasmus는 눈에 띄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견진의 성례전적 성격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다.

이상에서 볼때 confirmatio는 세례에 대한 과소평가가 그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요인들을 보면,

- 신비종교에서 온 마술적 성례주의
- 주교들의 계급주의적인 권력요구
- 유럽의 기독교화와 관련된 민중교육적인 노력
- 이단의 번성에 대한 교회의 방위요구
- 중세초기의 기독교의 개인주의와 지식주의 등이다.⁶⁾

6) K. Wegenast, Konfirmandenunterricht und Konfirmation, in: Adam, G./Lachmann, R. (Hrsg.), Gemeindepädagogisches Kompendium, Gottingen 1987, 320.

5. 종교개혁시대

a) Martin Luther(1483-1546) : 루터는 1523년 이후 견진을 구원에 필요한 성례로 취급하는 것을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또한 중세적인 견진의 이해를 통하여 세례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그것을 성례로 보기 보다는 중재의 기도(Fürbitte)에 근거한 축복의 행위(Segenshandlung)로 보았다. 이런 생각을 기초로 그는 안수(Handauflegung)를 받아들였다. 그의 기본적인 관심은 무엇보다도 세례자에 대한 교육에 있었고, 세례 후에 따르는 보충적 학습, 고해, 그리고 사죄선언등이 강조되었다.⁷⁾ 또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견신례가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전제로 강조된 것이다. “……나는 일곱개의 성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성경에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견진을 성례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을 열망한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견진에 관하여 무엇인가 약속하고 있는 것을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⁸⁾

b) J. Calvin(1509-1564) : 칼빈은 견신례를 신앙학습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였으며, 교리문답교육을 강조하였다. 물론 그는 로마 가톨릭이 견신례를 성례로 보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결코 가르침과 신앙고백을 통해 세례가 보충되는 것으로 보지않았으며, “복음적인 성만찬공동체의 형성” 혹은 “깨어진 세례언약(Taufbund)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였다. 유아세례를 이미 받은 청소년은 (10세로부터) 교리문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네차례씩 시험을 치루도록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수를 성례에서 행해진 것

7) 그의 안수, 고해 사죄선언등의 개념은 로마 카톨릭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축복의 행위로서의 안수, 중재자가 없는 보편적인 죄의 고백과 형제의 사죄선언 등이다. 실제로 그는 로마교의 고해성사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인 고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즉 고해의 형식은 유지하되 그 의미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배의식에 관한 그의 생각에서도 잘 나타난다. 1523년에 그는 로마미사(Romische Messe)를 옹호하였으며, 로마미사의 “정화된”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Formular Missae et communionis), 1526년 그가 스스로 만든 독일미사 (Deutsche Messe) 역시 의식 면에서 로마교와의 타협점이 드러난다. 그는 새로운 예배의식을 가진 새로운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였다. Vgl. D. Rossler, Grundriss der Praktischen Theologie, 159, 369ff; Josutis는 루터의 예배의식에 관한 신학을 antimeritorisch, antisakramentalistisch, antihierarchisch, antireformatorisch, antispiritualistisch, antisubjektivistisch로 요약하였다. M. Josutis, Theologie des Gottesdienstes bei Luther, in: Wintzer, F. (Hrsg.),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Vluyn 1985, 2. Aufl., 29-39.

8) M. Luther, Vom babylonischen Gefagnis der Kirche, in: G. Otto, Konfirmation und Konfirmandenunterricht, 419,

으로 보고 두번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였다.⁹⁾ 칼빈은 또한 견신례와 관련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c) H. Zwingli(1484-1531) : 츠빙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아세례와 교리학습의 연관성이었다. 즉 유아세례 이후에 따르는 세례에 관한 신앙고백을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백은 가르침의 과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교리문답시험과 거기에 따르는 신앙고백으로 6개월에 한번 정도씩 반복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루터나 칼빈보다는 에라스무스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그는 가르침과 시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견신례라는 이름으로 다룰 수 있을지의 문제점이 남는다.¹⁰⁾

d) Martin Bucer(1491-1551) : 교회법의 정립에 큰 공헌을 한 그는 견신례를 교회법적으로 정립하여 사람들은 그를 견신례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는 루터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통합하여 현재 서구의 교회가 실천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와 이해를 제시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은 Zwingli, Luther, Calvin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순수한 교육적인 관심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의 주된 관심은 무엇보다도 유아세례의 합법화에 있었다. 그는 세례를 새롭게 하는 일을 넘어서 '안수'를 성령의 전달형태로 그리고 교회의 '중재기도'를 축복의 행위로서 강조하였다. 루터에서와 같이 견신례는 성찬에의 참여를 위한 전제였고 동시에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행위였다. 그는 다음의 다양한 몇가지 동기들을 함께 강조하였다.

- 학습의 수료 후에 행하는 '세례의 신앙고백'의 반복
- 도덕적 행위의 변화 의무
- 교회의 중재기도
- 성령의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안수
- 성찬에의 참여 허락¹¹⁾

그의 이러한 견신례 이해는 다시 성례전적인 견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있으며 루터와 마찬가지로 안수나 중재기도는 성례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축복의 행위로서 주어진 것이다.¹²⁾

f) Melanchthon (1497-1560) : 멜랑톤의 주된 관심도 교육적인 것이었으며 성찬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견신례의 중요한 요소로서 교리문답의 시험, 신앙의 고백, 교회의 중재기도등을 강조하였고, 안수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드렸다.

9) J. Calvin, Institutio IV, 19, 4ff. (Kritik an des Firmung)

10) K. Wegenast, a. a. O., 321.

11) Vgl. K. Wegenast, a. a. O., 322.

6.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일반적으로 경건주의는 개인의 경건을 중시한다. 이와같은 대전제 하에서 견신례교육 역시 개인적인 회개와 회심을 강조하였다. 성경이 견신례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암기를 떠나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즉 지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면이 함께 강조되었다. 한편 견신례의 중요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다.

- 하나님과 교회앞에서의 공적인 신앙의 고백
- 세례계약의 확인
- 성찬에의 참여허락
- 교회의 회원됨
- 교회실천의 생동화로서 견신례는 교회안에서의 유익하고도 교화적인 의식으로 간주된다.

계몽주의의 주된 관심은 교회에서의 교육 내지는 시민교육에 있었다. 계몽주의를 특징짓는 세가지 단어는 합리화 (Rationalisierung), 윤리화 (Moralisierung), 情緒化 (Emotionalisierung)로서 이것은 이 종류의 견신례교육을 특징 짓는다. 즉 견신례교육에서 이성의 사용이 강조되고 윤리적인 덕목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견신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시되었다.

- 공적인 선언으로서 의무적 성격이 강조됨
- 사회와 교회에서의 공적인 멤버쉽의 선언
- 세례의 갱신 (성찬에의 허용은 계속되었으나 약화됨)
- 축제적 성격과 정서적 성격의 강화¹³⁾

이 시대로부터 견신례는 하나의 성년식 (Jugendweihe)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견신례때 주어지는 견신례성구 (Konfirmationsspruch 혹은 Leitspruch)¹⁴⁾도 이러한 관심에서 이루어졌다.

12) 실제로 그가 영향을 준 교회의 법들은 안수를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 한다. (예를 들면, Ziegenhainer Kirchenordnung 1539; Kasseler Kirchenordnung 1539, Kolner Reformation 1543)

13) 계몽주의와 정서화의 관계는 한편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강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시민 정신, 또는 윤리적 강조는 견신례를 받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러한 윤리적인 규범을 소유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해 준다.

14) 적절한 번역이 없어서 견신례성구라고 하였다. 이것은 목사가 견신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성경구절로서 처음에는 함께 견신례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같은 구절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견신례를 받는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각각 다른 구절을 준다. 또는 청소년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목사들도 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이 성경구절이 하나의 생의 모토로서 암송되고 기억되었다고 한다.

7. 현대적 의미와 그 모티브 분석

이상과 같은 견신례의 역사적 발전은 견신례의 몇가지 모티브를 도출시켜준다. 이제 몇가지 모티브를 정리하면서, 그것이 현재 스위스나 독일 등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면서 견신례에 대한 최근의 접근방법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교" 의식과의 비교를 위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좋은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는 미비한 점들을 보충해 나가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a) 세례의 보충(성례전적 성격 : sakramentaler Charakter) : 이 동기는 주로 고대의 세례의식이나 로마교의 견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기이다. 개혁자들은 이미 세례가 어떠한 보충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례로서의 견진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견신례가 세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견신례에서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주어야 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보충적 성격은 잘못된 것이다.

b) 성찬에의 허용(교리교수적 성격 : katechetischer Charakter) : 이 견해는 특히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이자 특징이었다. 일정한 교리교육 후에 성찬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모티브는 아직도 중요한 동기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에 스위스를 예로 들자면 성찬식에 어린이를 참여시키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어 실시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이 모티브 역시 약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c) 신앙의 고백 혹은 개인적인 서약(결속적 성격 : Verbindlichkeitscharakter) : 견신례를 통하여 부모가 대신한 신앙고백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거나 서약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동기 역시 이 지역에서는 대단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신앙의 고백이나 서약이 청소년들에게는 지나친 요구이며, 그들은 아직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견해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신앙고백 없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다.

d) 교회나 사회의 성숙한 회원됨(통합적 성격 : Integrationscharakter) : 전통적인 견신례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가 교회의 회원됨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이 견신례가 교회와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 되어버렸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강요나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견신례 교육에 참여 하는 데, 이 수업의 과정이 끝나면 대부분은 교회를 떠난다.¹⁵⁾

15) 스위스의 Zurich주의 경우 견신례를 받은 청소년 역시 교회 안에서의 투표권은 만 20세까지 유보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유아세례의 대부(Pate)가 되는 것은 허락한다.

따라서 이 견신례는 오늘날 종교적, 신앙적 행위이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관습으로 화하여 삶의 과정에서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의식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에로의 혹은 성인됨에 대한 한 준비의 과정) 취급되고 있다. (Rite de passage; Uebergangsritus)

e) 기독교적인 삶의 확신성(안정화 : persönlicher Stabilisierungscharakter) : 이러한 동기는 루터나 Bucer의 축복의 행위로서의 견신례 개념(안수, 중재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며, 견신례에서 사용되는 견신례성구 역시 이러한 동기를 강조한다. 이 동기는 "불확실"로 묘사되는 오늘의 삶과 가장 불안정한 세대인 청소년기를 감안할 때 중요한 동기로 취급되고 있다.

f) 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적 의식(교회건설의 성격 : Charakter des Gemeindeaufbaus) : 이 축제적 성격은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에서 발달되어 19세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견신례의 동기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견신례나 견신례 교육이 교회와 젊은이들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미흡하며, 또는 그 축제가 기껏해야 가족단위에 머무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8. 결 론

이상과 같은 견신례의 역사적 발전과 그 동기의 분석을 통하여 드러나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지에서의 견신례의 현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 견신례의 전통적인 동기를 (세례와의 관련, 성찬식 참여 허락, 신앙의 고백, 교회의 회원됨) 이 거의 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 삶의 단계이행을 위한 견신례 (Konfirmation als Kasualhandlung), 삶의 확신성, 축제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한국교회의 입교의식의 강한 전통적인 동기들은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되, 입교의식의 갱신을 위해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는 전술한 여러 동기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도 견신례의 교육적 의미가 한국교회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라도 입교를 위한 준비교육 과정을 계획함이 좋을 것이다.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 신앙고백의 의미와 내용, 교회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등이 다시 확인되고, 입교의식 자체도 청소년들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공동체의 지원과 동반이 표현되며, 종교적 책임감을 갖게되는 그들을 축하하며, 책임성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예배와 프로그램이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견신례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견신례 예배의 구성등의 문제는 따로 다루기로 한다.

참고도서목록

Bode, J./Flemming, W./Kaufmann, H.B. (Hrsg.), Konfirmandenzeit von 11 bis 15? : Praxisberichte - Modelle - Perspektiven, Gütersloh 1985.

Dienst, K., Konfirmation - Historisch, in : TRE, 437-445.

Gossmann, K., Formen der Frömmigkeit von Konfirmanden, in : Comenius-Institut (Hrsg.), Handbuch für die Konfirmandenarbeit, Gütersloh 1984, 160-175.

Müller, Th., Konfirmation - Hochzeit - Taufe - Bestattung, Stuttgart 1988.

Neidhart, W., Konfirmandenunterricht in der Volkskirche, in : Comenius-Institut (Hrsg.), Handbuch für die Konfirmandenarbeit, Gütersloh 1984, 176-192.

Neidhart, W., Konfirmation - Praktisch - theologisch, in TRE/ 445-451.

Onnasch, K., Konfirmandenarbeit/Firmunterricht, in : Bäumlner, C./Mette, N. (Hrsg.), Gemeindepraxis in Grundbegriffen, München 1987, 257-268.

Otto, G., Konfirmation und Konfirmandenunterricht, in : Otto, G. (Hrsg.), Praktisches Theologisches Handbuch, Hamburg, 1975, 2. Aufl., 418-427.

Steck, W., Konfirmandenunterricht und Konfirmation, in: Wintzer, F. (Hrsg.),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Vluyn 1985, 2. Aufl., 194-211.

Wegenast, K., Konfirmandenunterricht und Konfirmation, in : Adam, G./Lachmann, R. (Hrsg.), Gemeindepädagogisches Kompendium, Göttingen 1987, 134-354.

도덕 및 인습적 일탈행위에 관한 아동의 상호작용적 개념 발달

Development of Children's Interactive Conceptions Regarding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조교수 김 상 윤
Assistant Professor,
Sang Yoon Kim, Ed.D.

서 론

1980년대 우리나라의 도덕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반영된 바 있는 Kohlberg의 인지적 도덕 발달이론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많은 관련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여 보다 보완적인 이론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Turiel (1983)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 및 인습개념의 독립적 발달이론이다. Turiel 등의 영역구분모형(domain distinction model)은 Kohlberg의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이 갖는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한계점 등을 극복하게 해 주지만 이 역시 도덕과 인습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송명자 등 (198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들도 서구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도덕과 인습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들어났다. 예컨대 서구의 아동들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사회인습적인 것으로 지각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아동들은 이를 도덕적인 사태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영역을 구분하느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러한 영역구분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 과정의 규명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도덕적 개념은 타고난 것인데 비해 인습적 개념은 내면화 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개념이 발달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규명은 도덕교육실제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에 실시한 횡단적 자료 가운데 국민학교 2학년 10명의 집단이 규칙 의존적인 반응을 다른 집단 즉, 그보다 어린 유치원 집단과 그보다 나이가 많은 국민학교